광주 교통체증 가장 심한 곳 롯데마트수완점

지난해 교통유발 부담금 6억1870만원 가장 많이 납부

10위까지 대형마트·백화점…병원·호텔·예식장도 다수

광주에서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장소는 어디일까.

광주시와 5개 구가 지난해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분석한 결과, 롯데마트 수완점이 5억8277만원을 납부해 가장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근거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상업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냈다는 건 그만큼 주변 교통이 혼잡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3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지난해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128억 500만원으로 모두 7036건의 시설물에 부과했었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42억 9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산구 29억 7000만원 ▲북구 23억 9600만원 ▲동구 21억 7300만원 ▲남구 9억 73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내는 시설로는 백화점·대형마트가 상위 10위에 모두 올랐다.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수완점의 경우 납부할 금액이 6억 1870만원으로, 금액으로는 교통정체유발 시설물 1위를 차지했다.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이 두번째로 많은 5억 8277만원을 부과받았다. 롯데마트 수완점과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주말이면 진입하려는 차량들로 심각한 교통 체증이 빚어진다. 북구 두암동 삼성홈플러스가 3억1513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 월드컵점, NC백화점광주점, 이마트 상무점, NC웨이브, 이마트광주점, 롯데마트 상무점 등도 10위 안에 올렸다.

상위 10곳에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전체 부담금의 27%에 이른다. 광주시 북구 관계자는 "10위에 대형마트, 백화점이 오른 데는 교통통유발부담금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가 다른 시설물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화점, 대형마트를 뺀 시설물로는 조선대병원이 지난해 9088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받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광천동종합버스터미널(8080만원), KDB생명보험(8000만원), 전남대병원(67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주말이면 결혼식장을 찾는 인파들로 교통 체증을 유발시키는 호텔·예식장들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얼마나될까.

서구 홀리데이인 호텔은 6700만원, 서구 웨딩그룹 위더스 4946만원, 광산구 드메르웨딩홀 4931만원 등을 부과받았다.

이들 시설물은 기아타이거즈 홈경기가 열릴 때마다 임동 일대를 마비시키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4118만원)보다 부담금이 많았다.

챔피언스 필드의 경우 지자체 소유 건축물이라 부담금을 절반 깎아주고 경기가 열리지 않는 휴무일도 부담금 산정에 반영된 게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일요일이면 차량들로 일대 교통을 마비 시키는 교회는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교통유발금 가장 많이내는 건물

〈단위:원〉

	구	건물명	부과액
1	광산구	수완롯데마트	618,700,720
2	서구	신세계백화점	582,773,830
3	동구	롯데백화점 광주점	563,142,410
4	북구	삼성홈플러스	315,136,800
5	서구	롯데마트 월드컵점	262,960,390
6	북구	NC백화점광주점	238,767,390
7	서구	이마트 상무점	232,661,460
8	동구	NC웨이브	219,535,630
9	서구	이마트 광주점	214,210,880
10	서구	롯데마트상무점	207,665,350

■ 교통유발금 가장 많이내는 병원·호텔

〈단위:원〉

	구	건물명	부과액
1	동구	조대병원	90,888,580
2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67,260,050
3	서구	Holiday Inn Gwangju	67,088,600
4	광산구	수완 센트럴병원	52,841,540
5	남구	광주기독병원	50,747,350
6	서구	웨딩그룹위더스	49,468,740
7	광산구	드메르웨딩홀	49,318,980
8	광산구	첨단병원	35,856,070
9	서구	라마다프라자호텔	26,739,150
10	북구	헤아림요양병원	22,046,170

오늘의 날씨

해뜸 06:31 해짐 18:47 달뜸 06:42 달짐 18:38

포근한 봄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 주	맑음	4/20	보 성	맑음	2/16
목 포	맑음	4/14	순 천	맑음	5/17
여 수	맑음	7/15	영 광	맑음	2/16
나 주	맑음	1/20	진 도	맑음	5/15
완 도	맑음	6/17	전 주	맑음	3/19
구 례	맑음	3/20	군 산	맑음	2/15
강 진	맑음	3/18	남 원	맑음	1/19
해 남	맑음	2/18	흑산도	맑음	6/14
장 성	맑음	1/19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북동	0.5	북동~동	0.5
	먼바다(북)	북~북동	0.5~1.0	북동~동	0.5
	먼바다(남)	북~북동	0.5~1.0	북동~동	0.5
남해서부	앞바다	북~북동	0.5	북동~동	0.5
	먼바다(서)	북서~북	0.5~1.5	북동~동	0.5~1.5
	먼바다(동)	북~북동	0.5~1.0	북동~동	0.5~1.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7:37	02:18
	19:59	14:46
여수	03:07	09:32
	15:29	21:37

◇ 생활지수

감기	높음
뇌졸증	보통
미세먼지	보통

◇ 주간 날씨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31(화)
7/22	11/18	13/15	5/13	3/16	6/17	7/18

약국 마스크 판매 자원 봉사 23일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약국에서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이날 판매할 공적마스크를 정리하고 있다. 북구와 자원봉사센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과 마스크 5부제 조기정착을 위해 관내 신청 약국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배치, 마스크 정리부터 판매, 전산 작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개구충 감염주의보

전북 60대 감염사례 발생

건협 광주지부 주의 당부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지부가 반려동물 개구충 감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3일 건협 광주지부에 따르면 최근 전북 지역에서 60대 남성에게 개구충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등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개구충은 주로 개과 동물의 소장에 기생하는 실 모양의 기생충으로 감염시 흡열로 빈혈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간혹 고양이에게서도 발견된다. 인체 감염의 경우 최근 반려 동물을 많이 기르는 미국, 호주 등 국가에서 간혹 발생해 학계에 보고된 적이 있으나, 국내 사례는 매우 드물며 전북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국내 애완동물을 기르는 인구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생충 감염 사례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애완동물에 대한 기생충 관리 및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애완동물을 대상으로 주기 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구충제를 복용시키는 것은 애완동물과 사람의 건강을 위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북구, 기초연금 국·시비 39억 더 받는다

시행령·조례 개정 따라

광주시 북구가 기초연금 국·시비 39억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23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정부의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광주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국비 26억원과 시비 13억을 지원받게 됐다. 이로써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복지제도인 기초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는 게 북구의 설명이다.

북구는 올해 본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26.8%,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는 68.7%(4830억 원)를 차지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비를 부담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기초연금 국·시비 추가 지원으로 구 재정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됐다"며 "매년 사회복지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구정 전반에 걸쳐 재정 효율성은 높이면서 지역발전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 40주년 기념식 옛 도청 앞에서 열린다

올해 열리는 제 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옛 전남도청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제 40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이하 5·18행사위)에 따르면 행사위는 5·18 기념식을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개최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가보훈처에 전달했다. 5·18 기념식은 여태껏 기존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행사위는 옛 전남도청 앞 광장이 5·18 민중항쟁 최후의 항쟁지라는 점에서 행사의 상징성과 역사적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기념식 장소와 관련, 5·18 행사위와 광주시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열리는 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릴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무등산 해빙기 낙석 위험 구간 안전점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해빙기 낙석위험 구간 안전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 북구, 119산악구조대, 광주산악연맹 등 민·관 합동으로 전날까지 이틀 동안 얼음바위, 의재교, 새인봉 등 급경사지와 바위 봉우리를 점검했다.

낙석 우려 여부와 앵커 고정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 내달까지 공중화장실 등 공원 시설물 안전점검을 이어간다.

임윤희 무등산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해빙기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해 안전한 국립공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